

특집

2011년 도서관계 각 단체의 계획 II



한국도서관협회 부산·울산·경남지구협의회

이제환 회장(부산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

051-510-3444 | jwleeh@pusan.ac.kr

01

우리사회 구성원들의 도서관에 대한 욕구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공공도서관을 비롯한 각종 도서관의 성장은 지속될 것이다. 그러나 도서관의 성장은 건물의 신축이나 시설의 확장과 같은 외형적 성장에 그칠 것이며, 전문성에 기반한 도서관서비스의 구현을 위한 질적 성장은 여전히 힘들 것이다. 도서관을 단순한 시설로 여기는 우리사회 구성원들의 무지와 몰이해가 여전히 전하며, 선진국형 도서관서비스를 실천에 옮기기에는 우리 도서관의 인적 역량이 아직 미흡하기 때문이다. 특히, 몇 년 전부터 급속히 진행되어온 사서직의 비정규직화와 비전문직화는 올해에 더욱 확산될 것으로 보이며, 그로인한 사서의 직업적 안정성과 전문성의 약화는 도서관을 늘어나지만 사서의 존재감은 오히려 줄어들어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로 이어질 것이다.

02

부산·울산·경남지구협의회는 올해 목표는 작년과 마찬가지로 지역내 현장 사서들의 직업적 안정성과 전문성을 강화하는데 주어질 것이다. 여러모로 한계가 있겠지만 지역내 사서직의 비정규직화를 저지하기 위한 대내외적 노력을 관련 단체들과 협력하여 전개할 것이며, 사서직의 업무 수행에 있어 전문성을 강화하는데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개발하여 운영할 것이다. 전문성 강화 프로그램으로는 2009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전문가 초청 콜로키움을 지속적으로 개최할 것이며, 특히, 지역내 문헌정보학과들과 협력하여 현장 사서를 위한 단기 재교육과정을 운영함으로써 시대의 변화에 적합한 도서관서비스를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하는데 주력할 것이다. 이에 더해, 지역내 사서들의 직업적 연대감을 고취하고 정책적 현안에 공동으로 대처하기 위한 역량을 키우기 위해 온라인/오프라인 모임을 활성화할 것이며, 도서관과 사서직에 대한 지역주민의 긍정적인 관심과 지원을 끌어내기 위한 다양한 홍보 및 대외활동을 전개할 것이다.



한국도서관협회 대구·경북지구협의회
백도흠 회장(경상북도교육정보센터 관장)
053-810-9777 | dh100@gyo6.net

01

전자정보기술 발달로 우리 사서들의 역할이 전통적인 자료 수집에서 네트워크 정보원への 접근 및 디지털 환경에 따른 역할이 더욱 강조·증대되고 있으며, 이용자의 정보의존도 또한 웹에 치중하고 있다. 도서관은 인류문화유산을 집대성·계승하여 현재의 모든 지식과 정보를 기반으로 미래사회를 개척할 수 있는 사회, 경제, 정치, 문화 등 모든 분야의 콘텐츠를 제공하여 인류를 풍요롭게 하는 곳이다. 그러므로 도서관은 다양한 콘텐츠 개발을 통해 양질의 정보제공과 이용자와의 소통과 교류를 위해 다양한 서비스 개발로 유비쿼터스 환경에 따른 미래형 도서관을 구현하는 데 한걸음 더 다가가는 해를 기대해 본다.

02

대구·경북지구협의회는 관종별 사서들의 지식함양과 새로운 환경변화에 따른 정보 교류 및 지식정보화시대의 중추적인 선도기관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 춘계·추계 세미나를 개최할 계획이다. 세미나는 복잡하고 빠르게 진행되는 변화의 물결에 대처하는 기술과 정보 공유를 통한 시너지 창출로 바람직한 도서관 환경조성을 위한 올바른 방향을 논의하는 대구·경북 도서관인들의 소통과 협력의 디딤돌이 될 것이다. 특히, 학교도서관 활성화를 위하여 학교도서관 담당 교사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여 지역내 대학도서관과 학교도서관, 공공도서관의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지식문화정보센터로서의 역할에 만전을 기할 것이다.



한국도서관협회 광주·전남지구협의회

김경욱 회장(광주중앙도서관 관장)

062-607-1320 | ksmk@korea.kr

01

오늘날 무한경쟁시대에 접어들면서 국가간에 경쟁이 치열해지고 적자생존의 법칙이 상존하고 있다. 나라마다 국가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창의적인 글로벌 인재육성에 온 힘을 쏟고 있는데 종합적인 사고능력은 독서와 사색을 통해서 얻을 수 있다. 따라서 도서관의 기능과 역할이 한층 더 중요시 되고 있다.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가 대통령 소속으로 출범하면서 도서관발전종합계획(2009-2013)이 탄력을 받아 도서관의 인적·물적 인프라 구축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본다. 올 한해도 각 도서관마다 독서·문화프로그램 활성화와 협력망 구축, 유비쿼터스 기반조성, 정보취약계층 위한 지원사업 등 모든 국민에게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 할 것이다. 또한 공공·학교도서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학교도서관이 성장하고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물적·인적 교류협력 등이 활발히 이루어질 전망이다.

02

광주·전남지구협의회의 중점 추진사업은 첫째, 정기총회 및 세미나를 개최하여 광주·전남 지역 도서관간의 소통의 장을 마련하여 교류협력을 증진하고, 사서의 업무능력 신장을 위해 전문강사를 초빙하여 직무연수를 실시할 것이다. 둘째, 광주·전남 도서관 발전위원회(가칭)를 조직하여 발전계획 수립 및 사서직 직원 위상 정립하는 한편 연구분과(어린이 서비스, 자료조직, 평생교육)를 두어 적극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셋째, 공공·학교·대학도서관 간의 연대가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을 한해는 도서관 간의 유대를 강화해 나아갈 것이다.

한 나라의 역사를 알려면 박물관을 가 봐야하고 미래를 알려면 도서관을 가 봐야 한다는 말이 있듯이 본 협의회는 광주·전남지역의 공공·학교·대학도서관과 연계하여 독서인구 지변화대에 힘을 쏟을 방침이다.



한국기록관리학회
정연경 회장(이화여자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
02-3277-2838 | ykchung@ewha.ac.kr

01

신묘년, 새로운 10년의 첫해가 시작되었다. 올해도 도서관계는 급속한 정보 환경의 변화와 함께 도서관의 가치를 다시 한번 확고히 할 필요가 있다. 특히 스마트폰의 대중화와 소셜 네트워크의 확산이란 시대의 흐름 속에서 도서관이 제공해야 할 서비스를 다각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이다. 도서관 환경의 변화와 그 속에서 도서관의 입지, 사서의 전문성에 관해 고민하고 그 역할을 강화하려면 변화의 추종자가 아니라 변화의 창조가가 되어야만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도서관 현장과 학계에서 도서관에 대한 열정과 책임감을 갖고, 보다 내실 있는 대학 교육과 계속 교육, 재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해야만 할 것이다. 이를 통해서 도서관의 이용자들이 도서관의 든든한 후원자가 되고 도서관의 새로운 문화를 정착시킬 수 있을 것이다.

02

한국기록관리학회는 올해로 창립 11주년을 맞이하게 된다. 지난 10년 동안 국내 기록관리학의 기반을 닦았다고 하면 이제부터는 기록관리의 선진화와 세계화, 전문성 강화를 시작하는 새로운 시점이 될 것이다. 5월에는 기록관리 업무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학술 발표와 토론의 장인 춘계학술대회가 이화여자대학교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11월에는 제3회 전국기록인 대회가 기록관리 유관 학회와 협회, 기관 및 단체가 중심이 되어 전국의 모든 기록인들이 한자리에 모여 기록관리에 관한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기록관리의 발전을 위해 소통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향후 시행될 가능성이 높은 기록관리 전문요원의 자격증 시험과 관련하여 학회의 교육 및 연구 분과를 중심으로 학계 차원의 연구와 세미나 발표도 함께 진행할 것이다. 이를 통해 학계의 목소리를 높이고 기록관리 전문요원 제도와 전문성이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끝으로 도서관과 정보, 기록관과 기록이 함께 시너지 효과를 누릴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그 분야에서의 전문성을 보다 확고히 하고자 한다.



한국도서관·정보학회

이제환 회장(부산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

051-510-3494 | jwleeh@pusan.ac.kr

01

도서관의 물리적 성장은 지속되었지만 작은도서관과 같은 ‘보조적’ 성격의 도서관이 늘어나면서 도서관의 공식적인 기능과 서비스에 대한 대중의 인식과 이해는 오히려 퇴보할 것이다. 비정규직 사서가 늘어나면서 사서의 직업적 안정성은 급속히 약화될 것이고 전문성에 기반한 사서의 고유 업무가 더욱 축소되면서 사서직과 비사서직의 경계는 보다 약화될 것이며, 도서관을 찾는 이용자는 지속적으로 증대하겠지만 사서의 존재감과 가치가 증대하지는 않을 것이다. 도서관정책을 입안하고 집행하는 집단과 일선 도서관의 현장 인력간, 도서관 현장 사서들간의 갈등과 괴리가 깊어질 것이다. 즉, 도서관의 정체성에 따라, 지역에 따라, 신분(정규직과 비정규직)에 따라 사서들 사이의 갈등이 심화되어 직업적 연대감은 오히려 약해질 것이다. 그 결과, 도서관의 양적 외형은 커지겠지만 질적 성장은 지난할 것이다.

02

한국도서관·정보학회는 2010년과 마찬가지로 도서관 현장과의 소통을 중시하면서, 우리 도서관계가 당면하고 있는 난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찾는데 역량을 집중하고자 한다. 작년에 본 학회는 분기별로 4회에 걸쳐 발간하는 학회지를 통해서도 물론이고, 두 차례의 학술대회(6월의 “위기의 도서관전문직, 무엇이 문제이고 어떻게 해결하고자 하는가”와 12월의 “문헌정보학 교육, 이대로 좋은가”)와 전국도서관대회의 라운드테이블(“소수자의 현장보고: 그래도 사서로 남기를 원하는 사람들의 이야기”)을 통해 학계와 현장을 건강하게 연결하기 위한 나름의 노력을 경주한 바 있다. 본 학회는 2011년에도 학회지의 편집 방향과 학술대회의 주제를 도서관과 사서직의 건강성 제고에 두고자 한다. 그 과정에서 작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현장 사서들의 연구능력 제고를 위한 “논문발표대회”를 지속해 나가는 동시에, 올해부터는 “도서관 현안에 대한 전국 대학생 논문대회”를 주최함으로써 문헌정보학을 전공하는 학생들의 도서관 현장에 대한 문제 인식과 직업적 연대감을 강화해 나가하고자 한다. 본 학회는 도서관 현장이 건강해야 문헌정보학계와 교육계도 건실해진다고 믿는다.



한국문헌정보학회

곽동철 회장(청주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

043-229-8407 | kwackdc@cju.ac.kr

01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도서관계가 하나 되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경주하는 한 해가 될 것으로 여겨진다. 예전과 달리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가 각 정부 부처별 긴밀한 협력을 통해 전체 관종별 도서관 진흥 정책이 함께 실효를 거둘 수 있도록 지금과 같이 조정하고 지원하는 역할을 더욱 충실히 수행해야 할 것으로 기대한다. 특히, 2011년도는 도서관계와 문헌정보학계가 외형적인 성장 못지않게 내부적인 성장에도 초점을 맞추고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중요한 시점이 될 것이다. 이를테면, 전국적으로 지방자치단체별 공공도서관 건립 경쟁이 지속되면서, 전문직 사서 인력의 확보와 도서관 경영 주체 결정에 대한 논쟁이 이해당사자간에 심화될 것이다. 또한 도서관 직원의 전문성과 역량 강화에 대한 관심이 표출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원할 교육 기회나 교육시스템 조차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다. 따라서 급변하는 도서관 현장과 문헌정보학계가 합심하여 도서관에 대한 이용자의 인식을 향상시키기 위해 사서 인력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전문화되고 수준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도서관 환경을 조성하여 나가야 할 것이다.

02

한국문헌정보학회는 작년에 창립 40돌을 맞이하면서 '연구, 교육 그리고 도서관' 이란 주제로 국내외 연구자들을 초청하여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하는 등 학문적으로 성숙한 모습을 대내외에 알렸다. 이어서 본 학회는 지금까지의 결실을 바탕으로 도서관계의 현안 문제와 문헌정보학의 발전을 위한 초석을 굳건히 하고자 노력할 것이다. 이를 위해 지금까지 계속 진행 중인 학회지의 국문 참고문헌과 제규정의 영문화, 영문초록에 대한 원어민 감수 등 다양한 사업을 계승하여 국제적인 인정 과정을 거쳐 구체적인 학술지의 세계화 결실을 맺도록 노력을 강구하고자 한다. 또한 2011년 새해를 시작으로 도서관계나 학계에서 보다 많은 회원들이 학회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쌍방향 소통을 활성화 할 예정이다. 이러한 소통을 바탕으로 도서관의 사상과 철학을 새롭게 조명하면서 도서관 관련 주요 정책 연구를 활발히 추진하고, 나아가 도서관 현장에 직접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토론의 장을 만들고자 한다. 이를테면, 도서관 관련 학회, 협회 및 단체들과 긴밀한 상호 협력을 바탕으로 도서관 사서의 전문성 강화, 사서자격제도의 개선, 문헌정보학 표준교과과정의 정립, 사서공무원 제도의 개선 등을 포함한 도서관 발전을 위한 이론적 틀을 정립하여 제공해 나갈 예정이다.



한국정보관리학회

오경목 회장(숙명여자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

02-710-9883 | kmoh@sm.ac.kr

01

그동안 도서관계의 지속적인 노력으로 공공도서관, 학교도서관, 대학도서관 등이 외형적으로나 수치상으로는 상당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고 할 수 있으나, 국내 도서관계의 속내를 들여다보면 그 문제는 여전히 심각하다. 이들 도서관들은 대체로 소속된 커뮤니티 안에서 각각 고급 '브랜드' 로서의 가치(지식경제사회에서 고급정보서비스 제공처라는 인식)를 미처 확보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예산과 인력지원(사서확보)을 원만하게 지원받지 못하여, 수준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많은 한계가 있음을 체험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지역에 따라 혹은 기관에 따라 '명품서비스'를 개발하여 소속 커뮤니티의 '고객충성도'를 높이고 있는 도서관들은 주목을 받고 발전을 계속할 것이나, 그렇지 못한 도서관들은 일반이용자 및 재정지원자들로부터 호응을 받지 못해 조직 운영의 어려움은 점점 심해질 것이다. 특히 정보서비스 영역과 모바일 기술이 융합되는 2011년에는, 보다 '고객지향적'인 서비스 요구가 심화될 것이고 도서관간 혹은 다른 유사서비스 기관과의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02

한국정보관리학회는 빠르게 변화하는 정보서비스 현장을 한층 더 발전시키기 위하여 사서(및 정보전문직)에게 정보서비스의 방향성을 제시하고 역량을 강화시키고자, 현장과 학문 속에 축적된 이론과 기법을 5월에 진행될 '정보관리강좌'를 통하여 소개 할 예정이다. 또 8월에는 다수의 신진연구자와 기존연구자가 함께 하는 논문발표 '학술대회'를 개최하여 정보전문직 및 도서관계의 최근동향에 대한 연구 성과를 소개할 예정이다. 고품격 정보서비스 지원을 위한 새로운 경영관리 기법, 스마트폰이나 전자책 리더기 등 새로운 IT 기술환경의 변화에 맞는 다양한 전문기술, 정보계량학 및 정보경제학 등 관련 분야의 최신 연구결과를 상호공유하여 회원들이 각자 소속된 현장에서 경쟁력을 갖추거나 고품격서비스를 설계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해 갈 것이다. 연 4회의 학술지 발간사업과 11월에 예정된 '학술발표회'도 더욱 활성화하여 회원 상호간의 참여와 관심을 높이고 학문과 현장의 발전에 기여를 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본 학회는 2006서울WLIC 개최를 계기로 2006년부터 매년 매권 2호를 영어논문지로 발간함으로써, 국내 정보관리학계에서 선도적으로 학술지 국제화를 위해 그간 노력해왔다. 올해는 국내학술지의 참고문헌 표기 국제화를 위한 원칙제정에 본 학회가 주도적인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한국문헌정보학교수협의회

조인숙 회장(한성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

02-760-4083 | ischo@hansung.ac.kr

01

2011년 세계정세와 경제상황을 보면 예측이 불가능해 보인다. 이웃나라 일본의 대지진으로 인한 충격으로 인하여 우리의 미래가 불확실하며 어떤 돌발변수가 생길지 예측하기 어려운 미지수라는 것이다. 여러 요인에 의하여 정부에서도 긴축정책을 펼 것이며, 경제상황이 어려워지면 도서관계에 미칠 재정적 지원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새로운 정보서비스와 시스템도입에 따른 재정적 지원문제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생각해보면 도서관 스스로 재정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이 답답하다. 점점 고조되고 있는 공공도서관의 위탁 문제와 학교도서관의 전문직 채용 문제, 좁아져 가는 문헌정보학과 졸업생들의 취업문제 등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산적해 있어 신묘년에도 묘수를 찾기는 어려울 것 같다.

02

한국문헌정보학교수협의회는 급변하는 지식정보사회에 맞는 문헌정보학 교육의 새로운 방향을 정립하기 위하여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대처할 것이며, 또한 도서관계의 현실적인 문제에 대하여 자문과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또한 유관기관과의 밀접한 관계 속에서 도서관계의 발전에 기여하는데 노력할 것이다.



전국전문대학문헌정보학교육협의회

박재혁 회장(대림대학 문헌정보과 교수)

031-467-4961 | jhpark@daelim.ac.kr

01

올해는 토끼 띠의 해이다. 토끼와 관련된 우화나 사자성어가 많이 있으나, 토사구팽(兔死狗烹)과 수주대토(守株待兔)처럼 조금 부정적이고 소극적인 면이 없지 않다. 그러나 토끼는 오히려 영물(靈物)이라고 알려진 거북이를 상대로 달리기에서도 월등히 앞섰고, 두고 온 자기의 간을 핑계로 원하는 바를 도모하는 영특함도 지니고 있다. 따라서 도서관계에서는 2011년 신묘년 새해를 맞이하여 지금까지 도서관 발전을 위해 준비하고 계획했던 모든 일들이 성장과 풍요, 번창을 상징하는 토끼의 지혜를 빌어 모두 이루어지는 한 해가 될 것이라 생각한다.

02

전국전문대학문헌정보학교육협의회는 전국 전문대학 문헌정보학과에서 “실무중심의 도서관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서 교과과정이나 교육방법론에 있어 기존의 4년제 대학과는 차이를 두어야 한다”는 취지로 1991년 결성되어 올해로 꼭 20주년이 되었다.

지금까지 이러한 목적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오고 있으며, 특히 2007년부터 전문대학 문헌정보학 교육에 필요한 기본교재를 총서로 간행하고 있다. 2007년 2월에 총서 1호인 『문헌정보학개론』, 2009년 8월 총서 2호로 『목록조직의 이해』, 2010년 2월 총서 3호로 『문헌분류의 이해』가 출간되었으며, 올해에도 다양한 주제로 총서를 출간할 예정이다. 또한 본 협의회는 학생들의 실무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대학부설평생교육원협의회와 연계하여 어린이독서지도사, 어린이한자지도사 자격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올해에도 송의여자대학, 창원대학, 대림대학, 동원대학 등에서 많은 학생들이 이 과정을 통해 자격증을 취득할 것이다. 한편 「고등교육법」이 개정되어 전문대학에서도 문헌정보학사 학위를 취득할 수 있게 되었다. 이에 본 협의회 회원교인 대림대학에서는 2010년부터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전공심화과정 개설 승인을 받아 운영 중에 있으며, 이 과정을 통해 문헌정보학사 학위를 취득하면 2급정사서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게 되었다.



(사)한국대학도서관연합회

곽동철 회장(청주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

02-888-2891 | kucla@naver.com

01

국가의 미래를 담보할 수 있는 확실한 대안은 교육과 연구·개발이다. 다시 말해 얼마나 효과적이고 미래 지향적인 교육과 연구·개발 시스템을 갖추었느냐 하는 것과 적절한 투자를 하고 있느냐 하는 두 가지 잣대로 그 나라의 미래를 가늠해볼 수 있다는 것이다. 교육과 연구·개발의 한 가운데는 대학이 있고, 대학의 핵심 기반시설 중 하나가 대학도서관이다. 그러나 우리나라 대학도서관의 위상은 매우 낮고, 모기관인 대학은 도서관이 교육과 연구 경쟁력에 기여하는 부분에 대한 인식이 열악한 형편이다. 그 원인은 무엇보다도 법률적 제도적인 장치가 미흡하다는데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공공도서관과 전문도서관 발전을 위한 「도서관법」과 초·중·고등학교 도서관 진흥을 위한 「학교도서관진흥법」은 이미 시행되고 있으나, 대학도서관을 목적도서관으로 한 법률은 미비한 상태에 있다. 이에 본 연합회는 2009년부터 「대학도서관진흥법」 제정을 서두르고 있으나, 법률안이 아직 국회에 계류 중에 있다. 금년에는 「대학도서관진흥법」이 조기에 발효되어 대학도서관 발전의 기틀을 잡을 수 있도록 관계당국과 도서관단체가 협력할 때이다.

2010년도에는 대학도서관 시범 평가를 시행한 바 있다. 공공도서관, 전문도서관 보다 늦게 시작되었지만 시범평가가 시행되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하겠다. 2011년도에는 「대학도서관진흥법」이 시행되어 대학도서관 평가가 일시적인 시범평가로 그치지 않고 지속적이고 가치 있는 정기평가가 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한편 여러 경로를 통하여 대학도서관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고, 모든 대학이 만족하는 평가가 이루어 질수 있도록 관계 기관과 협력해 시범평가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해 나아가야 할 것이다.

02

한국대학도서관연합회가 2011년도에 추진할 사업은 다음과 같다. 첫째, 법제연구사업으로, 지난해에 마무리 하지 못한 「대학도서관진흥법」 제정에 모든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대학도서관진흥법」이 시행되면 법률에 근거하여 대학도서관평가를 실시할 계획이다. 대학도서관평가는 실무자를 중심으로 연구팀을 구성하여 현장의 소리를 최대한 반영함으로써 모든 대학도서관이 만족할 수 있는 평가가 되도록 노력할 것이다. 그리고 저작권자와 이용자 간의 영원한 숙제인 「저작권법」 개정(현재 본 연합회가 입안한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에도 혼신의 힘을 다할 것이다. 둘째, 해외전자정보공동구매 사업으로서, KERIS 컨소시엄의 국가라이선스 선정 및 구독조건 협상사업(계속사업)과 KESLI 컨소시엄 운영사업(계속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셋째, 학위논문문헌공통이용사업은 학위논문을 유통하고 있는 국회도서관 및 KERIS와 협의하여 각자의 역할을 재정립하고, 서비스 체계를 개선할 계획이다. 넷째, 교육출판사업으로는 대학도서관연감 출판사업(계속사업), 대학도서관 통계분석 자료집 발간사업(계속사업), 연합회지 발간사업(계속사업), 단행본 출판사업(계속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대학도서관 사서들에게 자기개발의 동기를 제공하기 위해 세미나 및 워크숍(계속사업)을 개최할 계획이다. 다섯째, 교류협력사업으로는 전국도서관대회 워크숍 개최(계속사업), 대학도서관대회 개최(계속사업), 3개 대학도서관협의회 행사 지원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